

최고가 신고 뒤 다시 계약 취소... 일각선 '집값 띄우기' 의혹도

'광고중흥S클래스', 18억 거래 후 다시 취소돼 '개포자이프리미엄' 계약취소에 논쟁일기도 국토부 "이상 거래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중" "잔금 마련 못 하거나 계약내용 바뀌는 경우도"

최근 단지 내 최고가를 기록했던 실거래 계약이 다시 취소되는 사례들이 발견되고 있다. 계약일로부터 짧게는 한 두 달, 길게는 1년이 넘게 지나야야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일각에서는 이중 '집값 띄우기'로 단지 시세에 영향을 미친 뒤 다시 취소되는 허위 신고들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광고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지난 2021년 8월 18억원(26층)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썼지만

1년 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27일 돌연 거래가 취소됐다. 실제 해당 거래 이후 같은 평형 매물 2건이 뒤따라 18억원에 체결되기도 했으나 이후 시세는 다시 15억원 수준으로 내려왔다. 또 지난 2021년 8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가 지난해 11월 거래가 취소된 동작구 사당동 '이수푸르지오더프리미엄' 전용 84㎡, 지난 2021년 1월 15억3000만원으로 거래됐다가 지난해 2월 취소된 강서구 마곡동 '마곡13단지힐스테이트마스터' 전용 84㎡ 등은 각각 해당 단지의 신고가를 썼다가 1년 이상 시간이 지난 뒤 다시 취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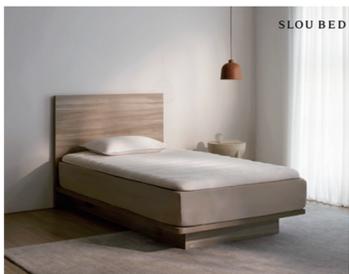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를 두고 실거래가를 올리기 위한 허위 신고라고 의심하며 "앞으로 매매 후 거래 취소에 대해선 더한 과징금을 물었으면 좋겠다"거나 "엄연히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니 이걸 사기"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최근에는 오는 2월 말 입주가 예정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프리미엄'에서도 계약 취소 신고가 올라오면서 온라인 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달 18일 국토부 시스템 상에는 전용 84㎡ 입주권이 26억원(12층)에 실거래된 사례가 두 건 확인됐다. 이는 지난달 신고된 거래 중 최고가로 지난해 12월 실거래가가 20억원(2층)까지 떨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6억원 오른 가격이었다. 그런데 그중 한 건의 거래가 지난 2일 계약이 취소되면서 '허위신고 후 계약 취소 사례'라는 주장과 '계약서 수정에 따른 중복 신고로 정상거래'는 주장이 부딪힌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안 그래도 같은 층에 2건이 찍혀 있어서

살펴보긴 했는데 이 계약을 직접 거래한 부동산이 아니면 현장에서는 내막을 알 수가 없다"며 "1년에 몇 번씩 이런 거래 신고가 뜨는데 한참 뒤에 정정신고가 뜨면 그제서야 내용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허위 거래 신고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2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개정, 실거래 신고 기한을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고한 거래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될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만들었다. 또 2021년 2월에는 거래 취소시 해제 일자를 공개하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같은해 4월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을 출범해 대대적인 전수 조사를 펼쳤고, 지난해 12월에는 부동산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해 이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확단'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단속에도 허위 신고 적발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 그쳐 급등하는 시세에 비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이상 고가 및 저가 신고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고 허위로 밝혀질 경우 허위신고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면서도 "광고 아파트 사례 등 일부는 거래 당시 최고가였고 거래된 지 1년 이상 지나 취소가 된 것은 맞지만 특별히 허위 거래 신고라고 볼 만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잔금일을 길게 잡고 잔금 마련을 하려고 했는데 마련하지 못해 그냥 취소했을 수도 있는 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포자이 건의 경우) 아직 제대로 살펴보는 못했지만 일반적으로 정정신고 건은 해제나 취소라고 쓰지는 않고 공개 내용만 시스템상으로 조금 바뀐다"며 "다만 가격 외에도 매수자 명의를 개인에서 공동으로 바꾸는 등의 이유로 원래 계약을 취소하고 다시 계약을 맺는 경우 같은 날 같은 금액에 두 건이 신고됐다가 한 건은 다시 해제될 수도 있어 이러한 사례를 전부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최이슬 기자

“호텔침대 누운 듯”...슬로우베드, ‘올라운드 시리즈’ 출시



수면 전문 브랜드 슬로우베드가 도파 매트리스 올라운드 시리즈를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신제품 올라운드 시리즈는 사용하는 위치나 시기 등 사용 환경에 맞춰 ▲올라운드 컴포트 ▲올라운드 컴포트 플러스 중 선택할 수 있다. 가벼운 무게와 이동 시 편리하게 잡을 수 있

호텔 침대 착와감·가벼워 손쉬운 보관

는 스트랩이 있어 손님 맞이에 사용해도 부담 없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손쉽게 접어 보관할 수 있다. 매트리스 위 사용에 최적화된 5cm 높이의 올라운드 컴포트는 슬림한 두께로 인테리어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호텔 침대에 누운 듯한 느낌을 선사한다. 7cm 풍성한 두께감의 올라운드 컴포트 플러스는 침대와 바닥 모두에서 배김 없이 포근한 숙면을 취할 수 있다. 올라운드 시리즈는 슬로우베드의 기술이 집약된 프리미엄 고밀도 레코텍폼이 인체와 맞닿는 부분에서 몸이 딱 맞게 변형된다. 어깨, 허리 결림 없는 깊은 잠을 선사한다. 신체 굴곡에 따라 포근하면서도 지지력 있게 몸을 받쳐준다. 온도 둔감형 메모리폼이 적용돼 기온에 상

관없이 일정한 착와감을 느낄 수 있다. 커버 내장재는 캐시미론 패딩과 에센셜 폼으로 조합했다. 별도의 패드 없이도 풍성한 쿠션감을 준다. 커버 상단면에는 고급스러운 플러시 퀴팅을 적용했다. 올라운드 시리즈는 가벼운 무게로 돌돌 말거나 3단으로 접어 깔끔하게 보관도 가능하다. 제품 후면에 장착된 레더락 버클로 큰 힘 없이 단단히 고정시킬 수 있다. 핸들이 부착된 스트랩으로 쉽게 체결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 올라운드 컴포트 도파 전용으로 별도 출시된 이지오프 걸커버는 먼지 날림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난 150데니아 피치스킨 원단으로 만들어졌다. 몸에 닿는 순간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으며 손쉽게 교체 가능하다.

김재환 기자

파리바게뜨, ‘핑크&러브’ 밸런타인데이 선물

귀여운 곰 캐릭터로 장식한 케이크 시즌 한정 제품



파리바게뜨가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핑크&러브'를 주제로 시즌 한정 제품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먼저 귀여운 곰 캐릭터로 장식한 케이크를 선보인다.

핑크&러브 케이크 위에 귀여운 곰인형의 모습을 그대로 구현한 초콜릿을 얹은 '곰곰이 너만 사랑해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 위에 디테일하게 구현한 곰인형 모양 초콜릿을 얹은 '곰곰이 너만 생각해 케이크' 등이다. 촉촉한 화이트&레드 시트 사이에 삼겹살같은 딸기리치잼 크림을 더한 핑크&러브 케이크 위에 하트 초콜릿을 올려 러블리한 무드를 자아내는 '썸 보다 러브 케이크' 등 하트를 디자인에 반영한 케이크도 있다. 특별한 디자인에 위트있는 이름을 붙인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폭신한 곰인형을 연상케하는 빅사이즈 파운드 케이크에 달콤한 초콜릿과 향긋한 과일을 더한 '곰인형 대신 나 어때 초코오렌지 파운드' & '곰인형 대신 나 어때 후르츠 파운드', 사랑스러운 곰 초콜릿과 필링가득 하트 초콜릿을 다채롭게 담아낸 '너는 나의 곰이다' 등이 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밸런타인데이에는 MZ세대의 취향에 맞게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한 선물 제품을 선보였다"며 "연인은 물론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밸런타인데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선옥 기자



갤럭시 S23 사전예약 시작 삼성전자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갤럭시 S23 시리즈 사전예약이 시작된 7일 서울 서초구 삼성 딜라이트샵에서 방문객들이 갤럭시 S23를 살펴보고 있다.

‘마더헤레사의 귀환’ GS25, 김혜자 도시락

지난 2010년 9월 첫 출시...이달 중순 재출시 예정

2010년 출시 당시 푸짐한 양 덕에 '마더헤레사(마더헤레사+김혜자)', '헤자푸드', '헤자푸드' 등의 신조어를 만들어낸 '김혜자 도시락'이 다시 출시된다. 지난 2010년 9월에 첫 출시된 김혜자 도시락은 2017년 상반기까지 편의점 도시락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다. 7년 판매기간 동안 김혜자 도시락은 총 40여종의 상품으로 출시되며 누적 매출액은 약 1조원에 달했다. GS25는 이달 중순에 김혜자 배우가 참여한 도시락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배우 김혜자는 지난 1일 인천 서구 오류동에 위치한 GS25의 전용 도시락 제조체인 후레시퍼스트에 방문해 시식을 하는 등 도시락 출시를 앞두고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방문에는 김혜자님을 비롯해 GS리테일 이정표 마케팅부장, 데일리푸드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양측은 지난해 2월부터 양질의 도시락 출시를 위한 '헤자로운 집밥'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상품 출시를 위해 1년의 준비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 속에서 김혜자의 최종 결정을 이끈 데는 GS리테일이 오랜 기간 진행해온 아동급식카드 지원에 관한 깊은 관심과 어려운 처지



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자활의지 고취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0년부터 지자체 등과 손잡고 아동급식카드를 GS25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GS리테일은 최근 지자체, 금융사 등과 함께 '아동급식카드 온라인 사전 예약 시스템'을 구축해 아동들이 할인된 가격으로 양질의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국 160여점의 내일스토어, 시니어스토어 등 운영을 통해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창업과 일자리 기회를 주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다.

뉴스

투썸, 아인슈페너2023 & 딸기 초콜릿 링딩동 케이크 출시

투썸플레이스가 밸런타인데이, 화이트데이 시즌을 맞아 투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아인슈페너와 초코 케이크 등을 출시했다고 7일 밝혔다. '아인슈페너 2023'은 2020년 선보여 높은 인기를 끌었던 '아인슈페너'를 한층 업그레이드한 음료다. 아인슈페너 2023은 아메리카노 대신 라떼를 베이스로 활용해 부드러운 라떼에 더욱 더 부드러운 생크림을 듬뿍 얹었다. 차에 과일 맛과 향을 더한 음료 '피치 블랙

티도 출시했다. 복숭아의 달콤함과 우롱차, 블랙티의 향기로움을 담았다. 디지털 신제품 '딸기 초콜릿 링딩동'은 미국식 홈메이드 레시피 '딩동(DING-DONG) 케이크'를 투썸만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제품이다. 초콜릿 가나슈로 도톰하게 코팅해 깊고 풍부한 맛을 구현했다. 이외에 작년 화이트데이 시즌에 많은 사랑을 받으며 시즌 베스트 제품으로 선정된 '빅토리 아 다쿠아즈 초콜릿 생크림'도 상시 판매를 시



작했다. 이슬비 기자